

海外情報

# 계란소비 증대활동

## 매스컴 통해 대대적으로

<미 국>

美國 계란위원회(American Egg Board)는 국내에서의 계란소비 감소추세를 만회하기 위해 400만달러를 들여 言論기관을 통해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계란위원회는 금년 늦여름부터 실시될 계란거래자들로부터의 기금모집을 앞두고 생산자측을 대변하여 계란소비 증진운동을 벌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계란소비 촉진운동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20개 주요 都市市場을 대상으로 주로 TV, 잡지, 라디오 등을 통해 선전 및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00만달러의 비용은 앞으로 12개월간 사용될 예정이다. 이자금은 광고 이외에도 소매상을 대상으로 한 판매촉진, 市場조사, 消費者教育, 생산자간 紐帶관계증진 등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이 자금은 계란연구 및 소비자를 위한 法律(작년에 議會를 통과해 전체생산자 투표에서 승인된 법률)에 의해 생산자들로부터 각출된 기금중의 일부이다.

美養鷄業界 전문가들은 생산자 각출금액수가 초년도에 600~700만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EB는 지난 1년간 83만 4,000달러의 제한된 예산으로 활동 해왔는데 이 자금중 75%는 계란상자 생산자와 병아리생산자들의 자발적 각출금이였다.

그러나 금년 8월 1일부터는 계란생산자들이 新設된 계란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계란 소비증진, 교육 및 연구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AEB는 앞으로 자금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란소비 촉진활동이 계란뿐 아니라 雞肉소비 촉진 및 가정의 계란소비와 계란과 계육의 식당 소비등도 크게 늘이기 위한 다각적인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계란 및 계육의 輸出확대에도 노력이 경주될 것 같다. 既成食品으로서의 계란소비는 전체 소비량의 20~30%, 계육소비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EB의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 AEB는 매스컴 광고를 계획하는데 있어 목표그룹집단(Target Group Index)이 그동안의 연구조사에서 발견한 사실에 중점을 두었다.

TGI에 의해 발견된 사실은 ① 계란을 사용하는 主婦의 수자는 증가했다. 그러나 ② 1일 기준의 계란사용량은 감소했다. ③ 계란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보다는 계란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④ 美國의 人口는 大都市로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⑤ 직업을 가진 主婦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AEB의 광고활동은 美國人口의 68% 이상이 살

며 계란도 많이 소비하는 都市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고효과를 極大化 할수있게 된다.

매스컴광고는 TV 및 라디오 네트워크와 Woman's Day, Family Circle, Good Housekeeping, Better Homes & Garden 및 Redbook 등 5개 잡지를 통해 벌일 계획이다.

20개 주요 都市市場이외의 다른지역에 대한 광고 활동비는 20개市場에 대한 광고비와 거의 비슷한 액수가 필요할것으로 예상된다.

商品化計劃: AEB가 과거에 해오던 소매점에서의 진열방법, 전시효과 확대등은 그대로 계속 될 것이며 유수한 식품회사 및 소매상 교육을위한 협조체제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소비자교육: 소비자교육은 계란의 영향가치 및 의학적관점에서의 각종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같은 교육과 계몽활동은 신문·잡지의 식품판, 라디오·TV의 기사, 학교에서의 가정교육, 선전책자, 호텔, 식당에서의 선전등을 통해 수행될 예정이다.

業界정보교환: 계란소비 증진계획에는 계란과 계육소비에 관계되는 모든 뉴스를 業界에 신속히 알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계획에 따르면 AEB는 소책자 보고서, 연례보고서, 業界소식, 카탈로그등을 모든 계란생산생산자들에게 배부하게 된다.

市場조사: 市場조사는 계란생산자들에게 소비자의 태도변화를 알려주고 광고효과를 측정 이를 보고서를 통해 생산자들이 알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과학계획: AEB는 人間の 영양과 식품 제조기술등을 과학자들로 하여금 개발하고있다. 과학자들은 계란과 人間の 영양문제에 관한 각종 자료와 데이터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AEB간부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적인 계란소비촉진 운동이 모든 계란 생산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된 것으로 믿고있다.

<미국사료포뮬럼협회 한국지부 제공>

# 식량과 동 위험 없다

미·소 풍작전망으로

<F.A.O 예언>

심한 가뭄으로 西歐와 濠洲의 농작물과 가축이 입고있는 피해가 확대될 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의 풍년때문에 세계전체의 식량부족의 위험은 모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식량 농업기구(FAO)의 전문가들은 6월말에 작성한 보고서를 지적하면서 금년의 세계곡물 생산량은 75년 보다 7%내지 8%증가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美농무성의 작황예보도 이와 같은 풍년 전망은 특히 美國과 蘇聯에서의 풍년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뭄때문에 비상시에 사용할 비축식량은 늘릴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세계식량 비축량은 FAO당국이 안전수준으로 간주하는 세계 소비량의 약 17~18%선에 미달하고 있다.

「유럽」 지방의 한발로인한 피해상황은 일기조건이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 정확히 계산하기는 힘들며 지난 수일간 「프랑스」와 「벨기에」에 비가 적기에 내렸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기상전문가들은 전망.

「다르디노」 歐共市 (EC)위원은 금년의 EEC의 총곡물생산은 작년의 9百4萬% 보다 5百萬% 적은 수준이 될 것이며 감자·과일·채소도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식물성 油脂 과부족

증산이 소비증가 못따라

<미 국>

내년 世界の 식물성 油脂 및 油脂粕 공급은 꺾박해질 것이라고 美國農務 관리가 전망했다.

세계 1차산품 분석가인 「알란·홀츠」씨는 「海外農業」誌에서 금년 美國의 大豆수확은 11%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브라질」의 大豆생산 및 「말레이시아」의 야자유 생산은 증가되어 이들 국가들의 내년도 세계 식물성 油脂市場 점유율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의 植物性 油脂粕 공급은 더욱 꺾박해질 것이라고 「홀츠」씨는 밝혔다.

세계 植物性油 및 動物性油 생산도 당초예상보다 34萬 6千% 증가한 4千 8百萬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상적인 연간 消費증가량이 1百18萬% 임을 감안할때 이는 크게 부족한 수치라는 것.



## 인도·유럽에 한발

印度의 올해 米穀 생산량은 4千 3百萬%으로 공식발표. 기록적인 大豊을 이루었던 지난해보다는 3百70萬%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米곡수입량도 지난해의 7萬 4千%에 비하여 대폭 늘어난 10~20%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C (歐洲共同體) 각국도 2百년만의 심한 가뭄으로 흉작을 면치 못할 듯. 지난 6월 22일 「피에르디노와」 EC농무위원이 전망한바에 따르면 올해 양곡 수확량은 당초 예상보다 1千萬%이 감소될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뭄으로 가축용 목초까지 말라버리는 등에 가축 기르기가 힘들게 되어 도살이 격증한데 대비하여 오는 21일까지 공동저장 시설을 마련하기로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 美·EC대립

—대두수입 규제 싸고—

미국은 구주 공동체 (EC)가 연간 2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EC대두 및 대두유수출에 새로운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 EC의 대미수출품에 즉각적인 대응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C는 지역내 사료업자들에게 대미수입대두 대신에 EC의 잉여분유를 사용하도록 촉구해 대미대두 수입을 감축시키는 조치를 치했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후부터 미국과 EC간의 마찰은 계속 고조되어 왔다.

미국의 프레데릭·멘트부역특사는 각료이사회가 곧 토의하게 될 수입관세부과 조치가 부당하고 현명치 못한 것으로 EC가 친명한 무역정책과 모순 되는 것이라고 공격하면서 만약 EC의 관세 부과나 다른 여러가지 조치로 미국의 대 EC대두 및 대두제품의 수출이 제약을 받게 된다면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리들은 이러한 대응 조치가 어떠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예상되는 조치로는 EC의 대미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등이 있을 것이다.